

「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」 정식 운영 계획

‘1년 內 위반이력이 없는 최초 위반자에 대한 제도·경고처분’ 시범운영 종료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일부 보완, 정식운영 실시

□ 추진 배경

- 일관된 법집행, 수용성 제고를 위해 ‘1년 內 위반 이력이 없는 최초 위반자 대상 1회에 한해 제도’하는 개선계획을 6개월간 시행('24. 1. 1. ~ 6. 30.)

□ 효과 분석

- (처리 기간) 6개월간 제보 건을 처리하는데 월 평균 24.1일이 소요 되는 등 전년 동기간 대비 늘어난 것^{+17.8일}으로 확인됨
※ 다만, 제보창구 통합운영 등 시스템 변화를 고려하면 제도 시행으로 처리 소요일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
- (주요 성과) 전년 동기간 대비 최초 위반자는 증가(+324,002건 / +28.7%) 하였으나, 2회 이상 위반자의 접수 건수(-56,887건 / -89.1%) 및 제도 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제도처분을 받는 경우(-323,469건 / -92.9%)는 감소
- (신고자·현장) △ 처분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높은 수용성 △ 체감 처리 속도 향상 △ 유연한 민원 응대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정식 운영 희망

□ 세부 추진 계획

- 시범운영 당시 실시하였던, ‘1년 內 위반이력이 없는 최초위반자에 대한 제도·경고처분’은 지속 시행하되,
 - － ‘제도·경고’ 처분의 횟수를 1년 內 최대 3회로 한정하고, ‘12대 중 과실 위반’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체로 확대 운영 실시
 - － 경고처분의 횟수제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, 같은 날 접수 되는 여러 건의 위반은, TCS 시스템상 1건으로 산정
- 개선안 시행에 따른 일괄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‘민원답변 표준안’ 마련, 각 시·도경찰청 공유·시행

□ 향후 계획

-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현장 의견등을 반영, 신속히 TCS 시스템 보완 후 시행('24. 11. 18. ~)